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의 현실 인식

차 희 정*

요약

본고는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통해서 해방 현실을 이해하고자 했다. 〈창〉, 〈여과〉, 〈슬픈 승리자(勝利者)〉는 차별과 편견을 체현하는 장애 인물을 통해서 정책의 모순과 이중적 현실을 재현한다. 소설 속 장애인은 주체성을 형성하며 해방기 좌우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이분법적 담론을 경계하고 소수자로서 여성 인물을 조력자로 형상화하면서 해방기 현실에 새로운 질서를 기획하였다. 〈혈담(血痰)〉,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의 주요 인물은 정책과 달리 열악했던 해방기 의료적 현실 속에서 타인에 대한 자발적 돌봄을 실천한다. 이는 사라 러딕이 주장한 모성적 사유로서 ‘어머니역할’을 실천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하는 행위이다. 또한 〈스핑크스의 微笑〉의 장애인 주인공은 삶의 허무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살아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속성을 이해하는 스텝크스 미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해방 현실에 대한 사변적 태도를 견제한다. 소설 속 장애인은 해방기 피상적이고 이분법적인 담론의 대결과 갈등을 체현하는 동시에 장애인으로서의 ‘성실한’ 주체 구성과 모성적 사유를 통해 삶의 불확정성을 인식하는 등 비판적으로 해방 현실을 인식했다.

주제어: 해방기, 장애인, 어머니역할, 모성적 사유, 불확정성, 현실인식

목차

1. 머리말
2. '성실한' 남성 주체의 성장
3. 모성적 사유와 연대를 통한 장애 탈주
4. 냉소적 시선과 비판적 미래 전망-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은 조선인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날인 동시에 해방된 삶의 구체적 실현의 기대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36년간 상실되었던 자유와 욕망의 분출로 해방 이전과 다른 '나'를 구성하는 첫날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권리인 동시에 과제였다. 해방된 조선의 인민으로서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위치를 구성하는 일은 건설될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과거의 회복이나 새로운 미래의 건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었다.

문학을 통한 해방기 구성원의 정체성과 주체에 관한 연구¹⁾는 특별한 시적 공간으로서의 해방기 모습을 펼쳐내며 이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다. 특히 해방기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남성성을 통해서 해방기 과제 해결을 스스로 맡거나²⁾ 이와 대척점에서 '무장해제'된

1) 전성규, 『해방의 우울과 퇴폐, 거세된 남성성 사이의 "명량":정비석의 『장미의 계절』과 『도회의 정열』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33-167면.
오태영, 『해방기 첸더 정치와 맨스플레인』,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79-218면.
류진희, 『식민지의 노라는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가:탈식민 노라봄과 이무영의 『3년』』,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463-481면;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면.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주류 담론의 문제를 의식·'인민주권성'의 삭제 문제 등³⁾하였다. 여성의 경우 서구 인물을 모델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일련의 양상⁴⁾이 드러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론적 구성을 실천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선행 연구는 다양한 인물의 의식을 형상화하고 집중함으로써 해방 현실의 다층적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해방 이전 질병 등으로 중도장애가 있거나 태생적 장애가 있는 이들이 배제되면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신체 결손이 있는 장애인은 일제강점에서 한국전쟁으로 연결되는 한국사의 특별한 시적공간으로서 해방기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존재일 수 있다. 해방기 맞부딪친 이념의 이상과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을 드러내며 다양한 장애를 양산했고 이는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인식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방기 구성원으로서 소설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등장하는 해방기 소설이 적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담론의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해방기 문학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체적 훼손과 결핍 등으로 성적 정체성이 무화되거나 제 3의 성(性)으로 간주 됐던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소외 의식의 문제 또한 역할

2) 오태영, 위의 논문(연구는 정비석, 김동리, 염상섭의 소설을 '남성서사'의 관점에서 읽으며 해방기 조선사회에서 '자기'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을 '가르치려는' 맨스플레인(Mansplain)을 통해서 남성들의 젠더 정치의 문법을 확인하고 있다)

3) 전성규, 위의 논문(연구는 정비석의 소설의 남성성은 탈자연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근대적 인간으로서 남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이들로써 정치적, 인민주권성의 삭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한다)

4) 류진희, 위의 논문(연구자는 입센의 『인형의 집』에 등장한 주인공 '노라' 붉이 식민 조선에 끼쳤던 영향을 바탕으로 해방 이후 신여성에 비견됐던 노라의 양상을 이무영 『피는 물보다 진하다』를 통해 살펴보았다.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 여성은 치적 이념으로 분분하고 가부장제로의 귀환 등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친일 작가 혐의를 벗으려는 이무영의 계획된 담론으로도 이해한다. 또한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에서는 해방기 남한여성이 아메리카 인도주의를 수용하고 그 모델로서 펄 벅을 이해했음을 그의 발언과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통해서 해방기의 중층적 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방기 구성원들의 사회적, 일상적 감각 등을 참고한 독법으로 소설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해방기 장애인의 정체성 구성과 주체성 발현 등의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서 해방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해방기의 장애인 인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일제강점기 장애인에 대한 정책 등을 살펴보는 것에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대책의 실상은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효율성에 맞춰져 있었다.⁵⁾ 실제 ‘조선구호령’⁶⁾ 등은 감시와 관리, 통제 목적의 복지정책이었으며 장애인은 근대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기획한 제국 일본에 의해 ‘건강한 신체’와 분리⁷⁾되어 배제,

5) 일제강점기 산업화 근대화 흐름 속에 장애인이 더 늘어났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되려 줄었다. 단발령 이후 지체장애인이 주로 하던 망건 짜기, 시각장애인이 주로 하던 점복(占卜)과 독경(講經) 또한 흑세무민을 이유로 비난, 금지시켰다. 장애인을 ‘불구자(不具者)’라 호칭하면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확산되며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일제강점기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정책과 특징』,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정창권, 『신문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 장애인 생활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3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119-156면을 참고하라)

6) 1944년 3월 1일에 공포된 ‘조선구호령’은 조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표방했으나 실체는 일본의 효율적 식민통치를 위한 목적이었다. 일례로 일제가 설립한 유일한 장애인 교육기관인 제생원 맹아부에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일어 교육과 재조(在朝)일본인을 위한 안마교육, 단순 노동(제조업)을 위한 수예, 판금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한규원,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특수교육』,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1994, 121-154면)

7) 1933년 9월 14일, 윤치호, 여운형, 유억겸, 주요한, 최두선, 김성수, 이광수, 현상운, 이갑수 등 총 85명의 발기로 ‘조선우생협회가 창립됐다. 이들은 유전학에 영향을 받은 의사들과 당시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육가,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등이었다. 조선우생협회는 ‘육체와 정신을 우생학적으로 개량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으나 우생학은 건강치 못한 인구를 구분하여 도태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과학적 토대였으며 장애인 차별과 배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데 역할 했다.(신영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 『의사학』 29, 대한의사학회, 2006, 149-150면; 정창권, 『일제강점기 장애인 대책

소외되었다. 유전자 개량을 통해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우생학적 사고는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임기술의 당위성을 구축하며 장애인 차별의 정당화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일제는 장애인을 ‘불구자(不具者)’라고 호명하면서 신체의 부정성을 양산하는 동시에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혐오와 증오를 확산시켰다. 장애인이 거리로 내몰려 결인 생활을 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살해당하거나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장애 문제 관련한 일간지 기사⁸⁾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해방기에도 ‘쓸모없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동정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⁹⁾ 식민 경험으로 형성된 구성원의 감각 세계는 해방 이후의 공간을 일정 부분 구조화하였는데 해방기 미군정청이 일제의 대부분의 정책과 운영 인력을 수용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제강점기 장애인 등장 소설에 대한 연구¹⁰⁾는 근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식의 정도와 그 양상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새로운 틀을 제안했다.

과 한계], 『건지인문학』, 전북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179-181면 참조)

8) 정창권, 앞의 논문, 131-132면 참조

9) 『동아일보』, 1947.4.9.자 “金德塔拳闘選手 賞金を 不具者에” 기사는 “김덕용 군이 3월20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권투시합에서 받은 상금 1천 5백원을 불구자수용소 비용에 써달라고 서울시후생제1과에 기증하였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에 조사에 의하면 쌀 한가마니를 현재 80kg으로 했을 때 1947년 경기미 1등급이 6.69원이었다니 1,500원은 약 224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불구자, 불구자수용소 등의 명칭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쓰였던 것을 볼 때 해방기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과 다름없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근대 소설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통해서는 ①장애인 인식(김용성, 『계몽주의 『백치야이다』에 나타난 여성, 종교, 장애 다시보기』, 『문학과종교』 vol21, 2016, 49-63면) 탐구와 ②아름디움과 추함의 가치와 ‘다른 몸’의 신체가 주는 이미지 연구(김명숙, 『현대문학 작품에서 본 ‘추’의 형상의 심미적 가치』,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4, 43-66면; 양윤의, 『한국 근대 소설의 신체 이미지 비교 연구: 근육감각 이미지의 시대적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69-91면) ③이광수, 김동인, 나도향, 이상, 손창섭, 김승옥 등의 근대 소설에 나타난 다른 몸의 주체와 타자성에 관한 연구(양윤의,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형(異形)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209-242면)가 선행되었다.

또한 장애를 비롯해 이형(異形)의 이미지를 통해서 당대의 의식적, 무의식적 지표를 검토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191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는 소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유독 해방기 소설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있다. 해방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염두 할 때 연구의 필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방기에 발표된 소설 가운데 장애인이 등장하는 소설 여섯 편¹¹⁾을 대상으로 문학과 사회의 상동성을 적극 참고하여 해방기의 중층적 현실을 이해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해방기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주체(성)의 회복과 획득의 과정을 탐색하며 해방기 ‘또 하나’의 담론으로서 장애인의 해방기 담론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 창작 문학뿐만 아니라 장애와 장애인을 주요 제재로 하거나 등장인물로 한 한국 문학까지를 포함한 ‘장애인문학’의 지평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성실한’ 남성 주체의 성장

해방기 미군정은 자신들의 점령 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38선 이북 지역의 소련 군정을 의식한 행위이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처음에 서울과 그 일대를 다니면서 만나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의 ‘여론 샘플링 여행(Opinion Sampling Trip)’이라는 명칭으로 이뤄졌다. 곧 여론조사는 1946년 2월 미군정 산하 공보국 여론처가 공보부 여론국으로 승격되면서 가두조사 방식으로 진행

11) 본고의 대상이 되는 해방기 소설은 이선희의 〈창〉(1946.6.26.-7.20 서울신문 연재/ 『20세기 한국소설』, 창비, 2005, 13-44면), 최태웅의 〈혈담(血痰)〉(1948.3 『白民』/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260-273면 이하 면수만 표기),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1948.10, 『白民』 305-319면), 〈스핑크스의 미소〉(1948.12, 『白民』/ 320-343면), 〈슬픈 승리자(勝利者)〉(1950.2, 『白民』/ 386-400면), 박영준의 〈여과〉(1949.1, 『白民』/ 『만우 박영준 문학전집』 1, 동연, 2001, 386-397면) 등이다.

됐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론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미군정에 대한 신뢰는 하락했다.¹²⁾ 일례로 1946년 3월 16일에서 29일 사이 4,177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에서는 “미·소 양군이 철수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미·소 양군 철수를 원하는가?”란 질문에 다수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해방기 조선인들의 미군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 함께 주체적인 국가건설의 열망을 증명한다. 그러나 미군정 초기(1945~1946) 여론조사는 통치 지지 정도 확인과 정책 선전을 목적으로 서울 중심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결과 공개와 정책 반영 등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실패¹³⁾했다. 일련의 미군정청 여론조사는 해방에 대한 조선인의 기대와 현실의 낙차가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기 삼팔선 북쪽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진행했다.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1조는 “일본인의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여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주는데 있다”는 것이었는데 위원회는 농민조합을 기반으로 각종 선전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¹⁴⁾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추진된 북한의 계급정책은 농민에게 계급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주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불러왔다. 토지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 의식이 담겨 있는데 개념적 차원에서 분배를 결정하고 이를 개혁으로 확장시켜가는 데에 계급투쟁의

12) 가두조사로 시행된 여론조사는 ①각종 만족도(미군정, 교통시설, 통신시설, 학교, 식량정책 등), ②경제체제 선호도(산업 국유화, 귀속농지·한국인 지주 농지의 처분, 농지 국유화 등), ③정치적 이슈 등이었고 답변을 만족/불만족으로 받아서 변화 추이를 추적했다. 여론조사 결과 특히 미군정의 쌀값 정책의 실패는 미군정 신뢰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정용욱 엮음,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258-268면)

13) 정용욱 엮음, 위의 책, 269-282면.

14) 김경호, 『北韓土地改革의 特徵에 관한 考察』, 『土地法學』, 한국토지법학회, 2005, 131-138면.

정치적 목적 또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토지 분배 개념과 오랜 전통문화를 지켜온 농민의 사고는 완전한 합일을 이룰 수 없었다.

이선희 소설 〈창〉¹⁵⁾은 해방기 토지개혁이 시작된 북한 농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인공 ‘김사백’은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홍역으로 한 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학교 교사인데 토지분배 때문에 해방의 설렘이 절망으로 전화 되고 끝내는 자살한다. 사백은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가 되었고 성실하게 일해서 땅도 장만했다. 장애가 있는 육체로 생존하기 위해 고투했으나 해방 이후에는 소지주라는 이유로 땅을 빼앗길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동생 ‘김사연’은 형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해방 이전부터 그는 소작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열등감에 빠져있었다. 지주 편을 드는 지주에게 흠뻑 빠진 아내와 다투면서도 ‘학사’에게 비굴했던 자신의 태도를 곱씹었고 토지개혁 이후 행방불명된 학사를 두고서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하고 있지만 곧장 “슬프다”고 고백한다. 평소 주먹으로밖에 학사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해방이 된 현재도 바뀐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유학한 학사의 지식과 깔끔한 옷차림, 흰 피부 등에 주눅 들었는데 해방이 된 지금도 열등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주체성이 결여된 사연은 해방이 되었어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백의 아내와 사연의 아내 또한 다르다. 두 집은 모두 가난한 형편이나 사백의 아내는 장애를 가진 남편보다 더 힘든 일을 자처하고 우직하게 일한다. 부부는 학교 교사라는 체면을 건어내고 꼬박 10년을 일해서 지주인 학사네서 다섯 마지기 논을 살 수 있었다. 사백의 아내는 가장이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조력하는 관습적 가족 형태 밖에 있었

15) 1946.6.26. - 7.20 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서울신문』은 해방 이후 미군정청이 인수하고 이후 강력한 영향력으로 1945.11.22 일 석간부터 속간호 간행했다. 미군정청의 정책을 옹호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등에 역할 했다. 이선희 〈창〉을 통해서 북한 토지개혁의 갈등과 허위를 고발하려는 신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다. 그녀는 일면 여성 노동자로서 남편과의 동지적 결합 속에서 가족을 꾸렸다. 그러나 사연의 처는 다르다. 그녀는 “삼일이 멀다 하고 인조건 분홍 저고리, 옥색 저고리를 갈아입”으며 꾸미고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세계와 관련한 책임은 오직 남편인 사연의 몫으로 이해한 채 “학사 아즈방”에게 놀러 다닌다. 거친 남편을 아즈방과 비교하기 일쑤인데다 남편의 잘못을 “일러바치겠다”고까지 한다. 그녀 또한 남편과 함께 타인과 현실에 주체를 양도한 인물이다.

사연은 불빛이 비치는 유리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형 김교사의 회고기는 손이 이 불을 켜 것같이만 생각된다. 그는 잠시 형의 흰 손이 이 불을 켜다고 생각했다. 사연의 어둡던 마음이 웬일인지 평안해진다.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걸었다. 우리들의 앞날도 누가 켜지도 모르는 그 창문의 빛처럼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¹⁶⁾

인용문은 사연이 형의 장례를 치른 날 밤에 학교 창문에서 발견한 불빛을 보면서 미래가 밝을 거라 믿는 장면이다. 사연은 형의 죽음을 새 시대를 기대하는 희생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사연의 어둡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백은 “시대의 발전에 뒤쳐”져서 “자기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역류하려는 한 개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¹⁷⁾ 자발적 주체 파멸의 인물인 동시에 이를 통해서 사연과 같이 현실과 조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주체를 자극하는 ‘성실한’ 인물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사백은 죽음을 통해서 현실에 순응해 살아오던 사연의 불안을 노출, 증거하는 동시에 사연의 현재적 삶의 조력자로 등극하며 주체의 발아

16) 이선희, 〈창〉, 『20세기 한국소설』, 창비, 2005, 144면.

17) 엄무용, 『소설을 통해 본 해방 직후의 사회상』,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2006, 615면.

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 사백과 다르게 박영준 소설 〈여과〉의 주인공 ‘원규’는 장애로 인해 삶의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가 없는 안면장애로 인해 삶의 즐거움을 포기했고 그럼에도 “안타까이(도) 즐거움이 그립고 희망이 갈망되”어서 불안해하고 있다. 원규는 자기 자신을 위할 길이 없으니 부모와 구순열을 앓는 여동생 ‘숙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부모의 뜻대로 결혼한다. 그러나 아내의 청각 장애를 알고는 “자기와 같은 병신에 만족해도 괜찮을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녀를 미워하게 된다. 해방 후에도 일제가 명명한 불구자로 호명되며 동정, 차별, 소외의 대상이 되었던 장애인의 자괴감과 열등감이 주인공 원규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결국 원규는 아내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피로워하다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목숨을 건진 후에는 사고의 변화를 맞는다.

“여보! 이불 좀 덮어 줘!” 그는 아내에게도 애원을 할 수 있으리 만큼 자기 자신에게 피곤을 느끼었는지도 모른다. 돌아앉아 눈물 흘리던 아내가 그 크지도 않은 말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눈물 닦을 새도 없이 일어서서 이불을 곱게 덮어 주었다./ “여보! 나 약 줘.” 약봉지를 가지고 와 약을 권하는 일에마저 겁을 먹고 있던 아내의 마음을 보살피거나 한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원을 했다.¹⁸⁾

인용문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원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기학대를 멈추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아내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아내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설에서 발화된 언어가 없다. 때문에 원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나 심리 상태를 알기란 어렵지만 남편을 걱정하는 그녀의 행위를 통해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녀는 남편을 의탁할 수

18) 『만우 박영준 전집』 1, 동연, 2002, 392면.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보다는 보살피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여동생 ‘숙치’ 또한 원규를 돌보며 그와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 소설은 각각 원규와 아내를 번갈아 초점화하면서 거리를 확보한다. 즉, 소설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초점자의 입장에서 어느 지점이나 어느 인물에게도 시선을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술자와 인물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술자가 장애인 원규의 비애감에 몰입되지 않고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의 사고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말한다. 주인공의 구체적 현실 인식이 두드러질 수 있는 까닭이다. 독자 또한 원규가 태생적 장애로 인해 경험한 세계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인식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의 범위가 주인공이 겪을 수 있는 체험의 범위에 제한되고, 모든 체험은 자기 인식을 위한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의 방향에 의해서 조직¹⁹⁾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살 이후 원규는 ‘자기’²⁰⁾를 인식하기 위해서 학문과 예술에 몰입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 욕망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일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바라는 생활의 구체적 전체면”을 찾고 싶었던 바람을 코를 복원하는 수술 제의를 수락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는 “자기 살을 찢어 자기 몸에 붙임으로 눈에 보이는 불구를 면하자는 행동”이 괴로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미래와 기꺼이 맞닥트릴 결심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자기 찾기에의 도전인 것이다. 이전까지 그의 고민과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삶의 한 단면을 보게 했다면 지금은 주체적인 모습으로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추동되었기 때문이

19) 루카치 G.,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9, 104면.

20) 여기서 ‘자기(Self)’는 본래적이고 선형적인 ‘나’이다. 자기는 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작용하고 있는 원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식의 중심이고 경험적 나가 되는 자아(ego)와 구분 된다(데이비드 테이시, 박현순 역, 『하우 투 리드 용』, 웅진지식하우스, 2008, 78-79면)

다. 원규는 아내와 여동생의 보살핌과 인내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주체를 소생할 수 있는 사고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증오와 분노의 대상인 타자로 존재하면서 자신을 향했던 분노와 증오가 사실은 소외된 타자였던 남편 원규의 자아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즉 원규는 원망과 독설을 퍼부었던 아내를 통해서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로인해 분열되는 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자는 주체에 선행해 존재하고, 주체는 타자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주인공 ‘상호’는 한 쪽에 의수(義手)를 한 장애인이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정숙’을 뿌리쳤다. 그러나 서술의 군데군데서 상호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정숙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상호는 정숙과 가까이 앉아 서로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순간에도 “번개치듯 눈을 뜨고 온몸에 전류가 통하는가 싶은 움직임”을 보이며 금세 이성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밀착해 온 정숙을 뿌리치고 일어섰을 때는 “시원한 바람이 새 때가 지나가는가 싶게” 결박에서 풀린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고만 놓지.”/“못 봐요.”/“왜?”/“모르겠어요.”/ 젊음이 하는 일을 어찌할 수 없는 제삼자의 관망처럼 마비되려는 자신을 일깨우듯 상호는 겨우, “내 손은 그림 손 뿐일세, 고무로 만든 의수(義手)…….”/“?”²¹⁾

상호의 고백을 통해서 성찰의 기회를 맞은 것은 정숙이다. 정숙은 상호가 거절할 때마다 “어떤 탄력에 밀려나서 아무렇게나 땅에 떨어진 사람모양 상호가 앉았던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머릿속에 “광채가 들어찬 듯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정숙은 상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뿐이다. 2주 전 만난 ‘준철’은 상호를 “색마”, “무책임한 사람”으

21) 『최태웅 문학전집』 1, 388면.

로 평가하며 자신을 과시했으나 ‘친한 친구’ 준철의 평가와는 달리 상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표리부동한 준철의 태도를 알고서는 자신을 안으려 다가오는 그를 물리치며 “떨어져 앉아달라”고 요청하고 “위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요. 이미 지금까지 둘의 사이에서 받은 것이 없었다면 그 이상 드릴 것이 없다”한다. 그녀는 현대 여성들이 “칼날 같은 이성”, “얼음같은 냉정”을 예비해야 한다면서 “처녀들에게 더없는 멸시를 퍼부을이만큼” 목소리를 높였던 준철을 공격하고 있다. 여자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수많은 말(가르침)을 쏟아놓는 것으로 주체성을 드러내려던 해방기 남성성의 한 일면²²⁾을 비판하는 주체적 여성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서술자 또한 초점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인물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덕분에 독자는 인물에 대한 냉정한 관찰과 함께 소설의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주인공 상호는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그는 연애감정을 고립시키고 있는 듯하나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삶을 꾸리는 개인이 되었다. 상호는 준철을 만나서 “되 젊은 것이 싸우자고 땀벼서” “땀대렸다”고 말하며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다는 것도 대강 알았네”라고 말한다. 준철의 호기로운 남성성과 장애 없는 ‘정상적’ 몸의 완력을 제압한 것이 복수나 승리의 기쁨이기보다는 갈등과 대결의 현실에 대한 조소인 것이다. 그러나 정숙은 물론이고 준철과 독자는 그의 ‘슬픈 승리’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정숙은 준철 곁에 있다 전봇대 뒤로 숨어버린 듯한 여성의 옷자락을 확인하면서 상호의 슬픈 승리를 존중하게 되었고, 준철은 그런 정숙과 어떤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겼지만 슬펐노라는 상호의 말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엄이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

22) 오태영, 앞의 논문(오태영은 논문에서 해방기 남성은 여성을 가르치려는 ‘맨스플레인(Mansplain)’ 전략으로 남성들의 젠더 정치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맨스플레인에 복속되지 않으려했던 해방기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숙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 이는 해방기 미군정이 일제의 행정, 의료 등의 정책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²³⁾하면서도 이전과 ‘다른’ 해방 현실을 선전했던 일련의 행위가 생산한 ‘슬픈 승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

3. 모성적 사유와 연대를 통한 장애 탈주

1948년 현재 의사 1인당 인구는 6,500여명이고 병원은 53개(관립 6개, 공립 36개, 사립 11개)로서 국민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책임부담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질병자는 국가의 지원 없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질병이 심한 경우 민간의약이나 한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²⁴⁾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정책 또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진행²⁵⁾되면서 사실상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해방기 의료서비스 현실은 최태응 소설 세 편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상화되고

23) 미국 경무부장 윌리엄 맥린의 발언은 해방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다시 복무하고 있다. 그들이 일제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채용된 이러한 조선인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강정구, 『해방 후 친일파 청산 요구와 좌절 그 원인』, 『반민족문제연구소』, 8.15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문, 22면)

24) 박인수, 『美軍政期の 韓國保健醫療行政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89-90면.

25) 박인수, 위의 논문, 94면(“당시는 일반 물질구호에 있어서는 朝鮮救護令과 駐韓美軍政廳의 救護準則에 의해서 救護對象者(65歲 이상의 老人, 6歲 이하의 扶養兒童을 가진 母, 13歲 이하의 小兒, 不治病者, 分娩時 도움을 필요로 하는 者, 精神的, 肉體的 결함이 있는 者로서 救護施設에 收容되어 있지 않은 者)에게 食糧, 住宅, 燃料, 衣類, 醫療제공,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들 對象者에게 保健醫療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救護는 주로 식량, 의류, 연료 등의 제공이고 보건의료 제공은 거의 없었으며(공중보건활동을 제외하고는) 일부 보건의료 제공이 있었다 해도 統班組織을 통한 엄격한 『資產調査(means test)』, 즉 救護對象者로서의 適格與否의 심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駐韓美軍政廳의 保健醫療 서비스는 剩餘的 模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있다.

〈혈담〉과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는 각각 1948년 3월과 10월에 잡지 『白民』에 게재된 소설이다. 각각 1인칭 시점으로 관절염, 신경통 등으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주인공 ‘나’와 연인이 된 간호사 ‘숙희’가 등장한다. 최태웅의 자전적 소설²⁶⁾이기도 한 소설은 주인공이 서술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건 전개에서 연인 숙희를 초점화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고 독자의 몰입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서 문제의식을 도출한다. 즉,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의 겪은 일을 믿게 하는 동시에 동일시의 경험을 제공하여 쉽게 주제에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다.

〈혈담〉의 주인공 ‘나’는 척추 염증을 앓다가 2년이 지난쯤 한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고 이후자살 시도를 거듭했다. 그러다 ‘문득’ 병원서 자신을 보살펴주었던 ‘숙희’를 떠올리고 곧장 평안남도 도립병원이 있던 진남포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는 서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두 해를 보낸 후 친구를 찾아 해주를 찾았을 때에야 간호사로 일하다가 폐결핵을 얻고 입원 중인 숙희를 만난다. 주인공은 말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숙희를 보면서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를 간병하기로 결심한다. 숙희는 이듬해 죽지만 주인공은 숙희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념하게 된다.

“세상 이진 팻병쟁이거나 문둥병쟁이거나 그저 남자거나 여자거나 통 분간이 없다니깐 그래” / “그러게 말이예요. 가진 병만 해두 진절머리가 날 텐데두……”/아내도 누님과 만나면 노상 맞장구에 어문 축은 아니다.

26) ‘자전적 소설’이란 “언술된 내용에서 저자와 주인공이 유사성을 갖는 텍스트”를 포함한다.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지 않아도 독자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 허구의 텍스트들이다(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지성사, 1998, 35면)

/ “할 수 없어 그걸 어쩔단 말이야. 세 살난 어린아이 아니구.” / 나는 필경 지는 척할 수밖에 없다. / 이렇게 살뜰히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눈을 감으면 나의 뇌리와 심중에는 내가 본 것 가운데 제일 어여쁘고 다정한 숙희의 얼굴이 가득히 생겨나는 것이다. 27)

인용문에서처럼 주인공은 병들고 장애가 있는 육체로 주변 환자를 돌봐온 듯하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돌봄을 추동한 숙희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혈담〉은 자칫 주인공 나와 간호사 숙희의 진부한 사랑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소설 속 시간이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구성이란 것 외에 두 사람의 성격과 심리상태가 평면적이며 둘 사이의 연애담 말고는 특별한 사건이 없고, 그마저도 특정 갈등 없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설에서 유의미한 관찰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숙희의 사랑이 주인공에게로 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을 통해서 타인을 향해 확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숙희는 병을 얻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돌봤다. 그녀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보살피는 ‘어머니역할’²⁸⁾, 즉 모성애적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역할은 출산과 양육 등의 일반적인 것과 분리될 순 없지만 동일한 것도 아니다. 즉, 출산의 수고와 어머니역할을 서로 존중하되 둘을 개념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출산과 어머니역할 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들을 야기하는 개념적·정서적 공간을 제공

27) 『최태웅문학전집』 1, 273면.

28) 사라 러딕은 여성도 남성도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산이 ‘어머니역할’의 일부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은 의료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남성은 생물학적 아버지인 동시에 다소 의식적으로 노력한 후에는 아이들의 공동 어머니(co-mother)가 될 수 있다. ‘어머니역할’ 그 자체는 불안정한 차이들을 주시하는 혼란일 수 있으며, 모성의 정체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몸이나 정신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결단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사라 러딕, 이해정 옮김,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현실사, 2002, 111-118면)

하면 어머니역할은 ‘훈련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활동’²⁹⁾이다. 보살핌의 다른 활동들은 서로 다른 사유를 생산하고 이런 종류의 사유는 ‘모성적 사유’와 연결될 수 있다. 숙희의 모성은 여성의 특수한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모성이 아니다. 오랜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 이타적인 사회·문화적 활동으로서 모성을 사유하는 방식의 결과인 것이다. 즉, 주인공의 장애를 차이로 인식할 뿐 그 차이를 통해 자신을 상대적 우위에 위치시키지 않는 것이며, 주인공의 장애를 위계를 낳는 핵심적인 기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 방식은 위계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동시에 비폭력을 향한 고투를 지속한다.

숙희의 모성애적 사랑의 실체는 같은 해 10월에 발표된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현현된다. 주인공 나는 숙희를 보살피면서 지난 시간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녀의 사랑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세상이 나에게 칭찬하고 상주는 경우에 그는 이태 있는 웃음과 손짓으로, 그것 보라고 그러기 살고, 노력하고 희망을 주지 않더냐고 대견한 듯이 떠드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이 나에게로 원수와 같이 수난을 퍼붓고, 나를 중상한다거나 심지어는 나를 직접적으로 훼손시키고 침해하려 하는 경우에 그는 또한 아무 염려 말라고, 오늘 익은 실과는 내일 떨어지는 법이요, 시방 나는 짐승도 이따 보면 시궁창에 구겨박혀 비명을 지르는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제법 나의 박약한 의지와 방황하는 정신을 붙들어 힘돋아 주는 것입니다.³⁰⁾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숙희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간병하

29) 사라 러더, 이혜정 옮김, 위의 책, 107면.

30) 『최태응문학전집』 1, 317-318면.

는 주인공을 위로했다. 또 죽음 이후에도 주인공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덕분에 주인공은 현재 장애와 함께 폐결핵을 앓고 있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의 사랑은 주인공을 살렸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게 했으며 타인에게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고 있다. 주인공은 모성적 사유의 동력을 통해서 주체적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두 편의 소설은 서술자인 주인공 나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말하고, 곳곳에서 숙회를 초점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숙회를 통해 드러나는 모성적 사유의 정체를 밝히고 독자의 몰입을 통해 주제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숙회와 주인공의 사랑을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하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은 해방기 건강증진을 내세운 의료 정책과 이에 미치지 못했던 현실의 간극, 그리고 그것의 극복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에 발표된 〈스핑크스의 微笑〉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스핑크스의 微笑〉의 주인공 '소년'은 오랜 어깨 관절염을 앓으며 차도 없는 치료를 진행 중이다. 종일 독서에 집중하는 소년은 주변 환자들과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이다. 같은 병실에는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소년과 의료사고라 주장하며 병원의 눈치를 보며 치료중인-종일 자신의 다리를 들여다보는-소년 한 명이 함께 있다. 일관된 행태를 보이는 두 명의 소년과 달리 주인공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답답함, 두려움, 분노 등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의 정체를 밝히고자 독서에 몰두하는 동시에 스텝 사진들을 들여다보기 잘한다. 소년은 특별히 스텝의 미소에 집중한다. 그리고 며칠 뒤, 건너편 여성 병실에 응급으로 입원하게 된 여공 '경숙'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① 여공은 잠옷 겹 입은 속치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배에 감긴 여

러 발의 붕대를 풀어내고 수술자리 꿰맨 실밥을 꼼직스럽게도 자기 손톱으로 집어 뜯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가슴을 각질리며 숨을 씨익씩 쉬는 것이었다.

② “주산 무슨 주살 놓는다구 그대. 난 가만내버려둬두 나 갈 데루 갈 꼴.” …중략… 그는 무척 못마땅한 듯이 낮은 쩡그러 잘못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하였다. 그리고는 한번 웃음 아닌 웃음을 와락 지었다. 그 순간 소년은 거기에 따라 얼마름 자기의 얼굴이 웃는 것을 느꼈다. …중략… “그거다, 스프링크스의 미소다.”

③ 세상이란 사회란 정녕 살려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살 수 없는 길을 짓곳게 걸리우는가 하면, 막상 죽는 생명을 또한 고스란히 죽어 가지 못하는 데가 아닐까. …중략… 소년에게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려온 허무의 미소를, 그 이름도 껍질도 없는 여공에 의하여 깨달았던 것이다.³¹⁾

인용문은 주인공의 건너편 방에 입원한 열아홉 살 여공 경숙이 병원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와 주인공 소년이 경숙을 보고서 생각한 삶의 의미의 내용이다. 소년은 여공의 급작스런 입원과 수술, 죽음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살아온 짧은 인생을 상상한다. 경숙이 죽음에 이른 경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방기 의료 현실³²⁾을 드러

31) 『최태웅문학전집』 1, ① 331면, ② 342-343면, ③ 343면.

32) 주한미군정청의 보건의료행정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최소에 그치고 국민의 보건의료요구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하에 충족되었다. 재정의 부족과 행정력의 빈곤과 더불어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개별적 보건의료보호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다만 미미하나 주한미군정청의 공중보건활동에 의해서 간접적인 보건의료혜택을 입고 있는데 불과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정청의 보건의료행정 기조는 제도적 모형이기 보다는 정부책임이 최소적인 잉여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Ramesh Mishra, *Society and Social Policy : Theories and Practice of Welfare*(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pp.100-163을 박인수, 앞의 논문, 88-89면에서 재인용)

낸다. 단신 월남한 경숙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일하다가 결국 고통에 못 이겨 병원을 찾게 되지만 큰돈을 요구하여 수술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진다. 그녀는 몇 시간 뒤 순경에 의해 관비(官費)환자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지만 “병을 키웠다”는 진단 속에서 처치를 거부하다가 새벽녘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는 사망한다. 사실 해방기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국가 역할은 적산(敵産)처리, 전염병 관리, 의료인 면허 갱신 등의 당면한 행정 업무처리에 국한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보건의료 분야는 정치·경제·사회영역처럼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났³³⁾다. 이는 경숙이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형상화되면서 훼손되거나 결손된 해방기 의료 정책³⁴⁾과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경숙의 웃음은 “무심한 세상!”이라며 탄식한 삶의 비애와 허무였다. 그런데 경숙의 사건은 주인공 소년이 병실에서 읽고, 눈물 흘렸던 릴케의 단편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 ‘클라라’의 삶의 태도와 비교되면서 해방 현실의 또 한가지 인식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둠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게오르크 라스만’ 박사는 생활에 젖어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클라라’를 떠올리고 그녀를 찾아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누이와 매부를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삶은 사람들의 조소와 소문 속에서 무참히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그녀를 만나고서 그녀야말로 삶을 주체적으로 자신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지 않았고, 현실의 절망적 상황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아주 즐거웠어요.’ “ ‘무엇이?’ ‘그

33)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의사학』 19(2), 2010, 385-431면.

34) 해방기 의료정책은 1944년 일본의 ‘조선의료령’에 따랐다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료법 또한 당시 세계 최대 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개혁, 보완하기 보다는 은폐하는 효과에 치중되었다고(이주연, 위의 논문 참조)

것은……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많은 램프볼…… 정적……축제일 같은 기분이.³⁵⁾ 라는 클라라의 말은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에 빠져있는 게오르크에게 기다림이야말로 절망적인 삶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기다림은 하느님의 흔적을 찾는 일이며, 하느님의 존재를 느꼈을때에 어둠(현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소년이 보았던 잡지 속 스프링크스의 미소는 여공 경숙과 릴케 소설 속 클라라의 삶의 태도를 함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프링크스의 웃음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을 “눈 멀거니 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각급하고 부지럽다”는 웃음이다. 즉, 경숙이 해방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낀 삶의 허무와 릴케의 소설 속 클라라가 보여주는 인내의 삶-하느님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의 태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안타까움의 웃음인 것이다. 때문에 스프링크스의 미소는 고난의 삶일망정 ‘살아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소년은 장애로 인해 삶을 체념한 듯 했지만 릴케의 단편을 읽으며 하느님을 기다리고 찾는 깨달음에 눈물 흘렸고, 혹독한 세상을 경험한 여공 경숙의 삶을 상상하면서 ‘어둠’과 ‘허무’를 거듭 상기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두를 스프링크스의 미소로 귀속하며 예측할 수 없고 구체화 할 수 없는 삶의 속성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소년의 삶은 그에게 희망을 허락하지 않지만 절망 또한 확정하지 않으므로써 비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기회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35) 라이너 마리아 릴케, 송영택 옮김, 『사랑하는 하느님 이야기』, 문예출판사, 154면

4. 냉소적 시선과 비판적 미래 전망-의의

해방기는 민족국가건설의 이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담론이 왕성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이상적 담론은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를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존재가 소설 속 장애인이다. 개별화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은 해방기라는 특별한 시적공간에서 존재하며 장애를 통해 해방현실의 중층적 현실을 보여준다. 해방기 장애인의 경험은 그것이 사회적·역사적으로 서로 얽혀있음을 상기할 때 해방 현실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낸다.

〈창〉의 주인공 김사백은 태생적 장애가 있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고투했다. 그는 신체 결손 때문에 누구보다 냉정하게 삶의 궁리를 실천했고, 책임져야 할 가난과 굶주림을 두려워했다. 그는 교사가 되어 생계를 책임졌고, 열심히 공부하여 일제 억압 속에서도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애족을 가르치는 교사로 거듭났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위한 돛자리 견기에 매진하여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된다. 소지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성장해온 그의 주체적 태도는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는 그의 주체성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는 동생 사연이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을 분배받게 된 것과 달리 토지를 몰수당하게 되어 목숨을 끊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사연을 비롯한 여타 인물들의 주체를 추동하였다. 문체적 지점이다.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했고 현실과 지속적으로 대결하는 속에서 주체를 구성해 왔다. 그러나 동생 사연은 소작농인 자신의 처지에 불만도 있었지만 소작을 하겠다는 선택에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 때문에 지주에게 굴종했고 자신의 비겁을 합리화했다. 그는 토지개혁의 의도와 실체를 읽어내

는 것보다 자신이 땅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형의 죽음 이후 학교 창가에서 발견한 불빛을 보고 형이 자신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은 주체성이 결여된 현실 인식이 가져올 불안을 감지했으나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형의 죽음을 희생으로 승화하고 싶은 듯하지만 주체를 구성하지 못한 이들의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긍정의 태도와 인식의 도출일 뿐이다. 토지개혁의 일면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단편적 생각이다. 사백의 죽음은 이의 경계를 강조하면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소설은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성실한 소지주들의 몰락과 희생이 전제되었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미래가 밝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데올로기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작가의 의도³⁶⁾를 다른 자리(視座)에서 새롭게 읽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과〉의 주인공 원규와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상호 또한 장애인으로서 자기를 찾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원규는 일시적이거나 그것도 성공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복원하고자 결심하지만 실패할 수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며,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원규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삶의 총체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증명한다.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상호는 이성적 태도와 의지로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데 이는 완전한 육체를 내세워 우월성을 보장받으려는 준철의 허위를 무너트리는 주체적 행위이다. 그는 스스로 이를 ‘슬픈 승리’로 명명하는데 이는 해방 이후에도 일체의 장애인 차별과 소외가 승계된 채 현실과 괴리를 빚은 미군정의 정책 등이 난무했던 해방 현실의 은유이기도하다.

앞선 세 편의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 인물들의 역할이다. 〈창〉의

36) 김효주, 『해방기 이선희 소설 〈창〉에 나타난 토지개혁 이데올로기와 서사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한국문학이론학회, 2018, 137-157면.

김사백의 아내와 〈여과〉의 원규의 아내,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정숙은 각각 주인공의 주체 구성을 조력하고 있다. 〈창〉과 〈슬픈 승리자(勝利者)〉의 여성은 남편, 연인과 더불어 주체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남편과 연인에 대한 인식이 타자적 존재인 사연과 준철의 남성성의 허위와 난무를 인식한 속에서 가능했다. 〈여과〉의 원규 아내는 원규의 증오와 분노를 받아내던 타자의 위치에서 원규의 타자성을 되비쳐 주는 역할을 실천하면서 원규가 스스로 주체 획득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해방 현실 주류에서 밀려나 제일 끄트머리에 위치한 장애인과 여성 등 소수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현실의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세 편의 소설은 해방기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몸소 증언하는 장애인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해방기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 여타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현실을 경계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은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담론과 선택, 수용 등을 경계하고 그것에 새 질서를 부여하는 동시에 비판적 현실 인식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획득한다.

최태응의 소설 〈혈담(血痰)〉,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는 주인공 나나 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간호사이자 나의 연인인 숙희를 초점화하여 장애가 있는 나의 인식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숙희가 보여준 어머니 역할의 모성적 사유의 정체를 드러내 밝힌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보살핌을 결국 자신을 위한 보살핌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대상의 성장과 양육을 목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등의 사유이다. 보살피는 사람, 숙희는 보살핌을 받는 나와 함께 했다. 보살피는 사람 나도 보살핌을 받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했다. 이러한 보살핌은 “생명을 탄생시키며 스스로 생기(生起)하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생명체를 돌보는 일이며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혹은 동물-과의 연결(connections)을 지속시켜 주는 것”³⁷⁾이다. 더불어 각각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유와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모

성적 사유의 과정은 나아가 해방 현실의 수많은 담론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한 혼돈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태를 설계한다. 이는 이후에 발표된 〈스핑크스의 微笑〉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스핑크스의 微笑〉는 주인공 소년과 여공 경숙을 번갈아 초점화의 주체로 삼아 해방 현실의 삶의 비애와 허무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이 읽고 눈물 흘렸던 릴케의 단편 〈어둠이 들려준 노래〉의 클라라가 “하느님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기쁨을 찾는 삶과 서로 교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소년은 거의 매일 바라보며 웃기도, 울기도, 중얼거리기도 하는 �핑크스의 미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주지하듯 〈혈담(血痰)〉, 〈유명(幽明)의 경지(境地)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정책 선전과 달리 열악한 의료적 지원만이 실천되었던 해방기 현실을 배경으로 타인을 향한 모성적 사유의 실천을 통해서 생존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형상화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도 타인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성적 사유의 연속을 보여주며 이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해방 현실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핑크스의 微笑〉 주인공이 깨달은 삶의 허무와 속성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가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 ‘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탄생³⁷⁾되었다는 것은 주인공과 가난한 여성 경숙의 삶의 장애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노력이나 판단에도 명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결과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삶의 불확정성을 깨닫게 했다. 이는 또 다른 방식의 현실 수용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가 있다.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은 피상적이고 이분법적인 해방기 담론과 정책

37) 사라 리덕, 이혜정 옮김, 앞의 책, 215면.

38) 신영전,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사회정책』 2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52면.

등의 대결과 갈등을 증명³⁹⁾하며 해방 현실을 체현하였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양육 역할을 지속하는 어머니역할의 모성적 사유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삶의 불확정성을 이해하는 현실 인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현실을 냉정하고도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해방기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은 해방 현실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해방기 구성원으로 존재했다. 완전한 육체를 갖지 못한 자들의 현실 인식을 탐색하면서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해방기의 결을 들춰내 볼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현재적 인식의 근거를 살피는 일에서도 유의미한 일이기도 했다. 해방기 장애인의 주체적 현실 인식은 해방기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후속 연구의 과제 또한 작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대상 소설은 해방기 민족문학지를 표방한 우익 성향의 잡지와 신문 등에 게재된 것이었다. 해방기 발행된 좌익 계열 잡지에서 장애인이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소설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북한 정권 수립 직후 북한문학에 등장한 장애인의 의식 등으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한다.

39)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몸은 세밀하게 묘사, 해석, 전시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 확신, 환상을 배출하는 아이콘 기능을 해왔다.(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110면) 해방기 장애인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절곡의 공간을 생성한 해방기 현실을 증언하고 그 특성을 체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영준, 『만우 박영준 전집』 1, 2002, 동연, 386-397면.
 최원식·임규찬·진정석·백지연 엮음, 『20세기 한국소설』, 창비, 2005, 13-44면.
 권영민 엮음,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260-273면, 305-319면, 320-343면, 386-400면.

2. 논문 및 단행본

- 강정구, 『해방 후 친일과 청산 요구와 좌절 그 원인』, 『반민족문제연구소』, 8.15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문.
 김경호, 『北韓土地改革의 特徵에 관한 考察』, 『土地法學』, 한국토지법학회, 2005, 127-142면.
 김명숙, 『현대문학 작품에서 본 ‘추’의 형상의 심미적 가치』,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2014, 43-66면.
 김용성, 『계몽주의 『백치아다다』에 나타난 여성, 종교, 장애 다시보기』, 『문학과종교』 vol21, 2016, 49-63면.
 김효주, 『해방기 이선희 소설 〈창〉에 나타난 토지개혁 이데올로기와 서사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한국문학이론학회, 2018, 137-157면.
 류진희, 『식민지의 노라는 해방 후 어떻게 되었는가: 탈식민 노라봄과 이무영의 『3년』』,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463-481면.
 _____,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면.
 박인수, 『美軍政期の 韓國保健醫療行政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신영진,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비판사회정책』 2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45-90면.
 양윤의, 『한국 근대 소설의 신체 이미지 비교 연구: 근육감각 이미지의 시대적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69-91면.
 양윤의,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이형(異形)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209-242면.
 염무웅, 『소설을 통해 본 해방 직후의 사회상』,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2006, 605-632면.

- 오테영, 『해방기 젠더 정치와 맨스플레인』,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79-218면.
- 유인호,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 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2006, 447-540면
- 이중훈, 『미군정 경제의 역사적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2006, 541-602면.
- 이요한, 『1920-30년대 일제의 장애인정책과 특징』,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정창권, 『신문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 장애인 생활상』, 『Jouanal of Korean Culture』 32,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119-156면.
-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의사학』 19(2), 2010, 3 85-431면.
- 전성규, 『해방의 우울과 퇴폐, 거세된 남성성 사이의 “명량”:정비석의 『장미의 계절』과 『도회의 정열』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133-167면.
- 정용욱 엮음,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258-268면
-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19-152면.
- 정창권, 『일제강점기 장애인 대책과 한계』, 『건지인문학』, 전북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179-181면.
- 한규원,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특수교육』,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회, 1994, 121-154면.
- 데이비드 테이시, 박현순 역, 『하우 투 리드 읍』, 웅진지식하우스, 2008.
-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9, 97-105면.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송영택 옮김, 『사랑하는 하느님 이야기』, 문예출판사, 142-158면.
-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그린비, 2015, 108-149면.
- 사라 러딕, 이해정 옮김,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현실사, 2002, 39-292면.

<Abstract>

The Perception of Reality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Cha, Hee-Jung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liberation period through the eyes of the characters with disabilities that appear in some liberation novels. In novels *Window*, *Filtration*, *Sad Victory*, these characters experienc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which convey the contradictory and two-sided nature of the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is period.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se novels develop their identities, vigilant about the dichotomous discourse buried under the ideology of liberation. Portraying the female characters as key helpers, they structure a new system which constitutes the reality of the liberation period. The main characters of *Blood Sputum* and *At Famous Spot* voluntarily helps others in need. This stems from a ‘maternal instinct’ as proposed by Sarah Ruddick and is a practice of seeking ways to coexist. Furthermore, the protagonist of *Sphinx’s smile* com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phinx’s smile, by recognizing the futility of life and surviving in coexistence with others, as an understanding of the unpredictable nature of life. This leads to the protagonist becoming cautious of the speculative behaviors towards liberation. The characters with disabilities in these novels experience the conflict in the speculative and contradictory discourse of liberation. Through this, they embody the uncertainty of life and recognize the reality of liberation.

Key words: The Liberation Period, People with Disability, Mothering, Uncertainty, Perceived Reality

투 고 일 : 2020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9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